



## 한·미 FTA저지 범국민 총 결기대회

한·미 FTA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농대위)와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월 22일 서울광장에서 '한·미 FTA 저지 1차 범국민 총결기대회'를 갖고 정부에 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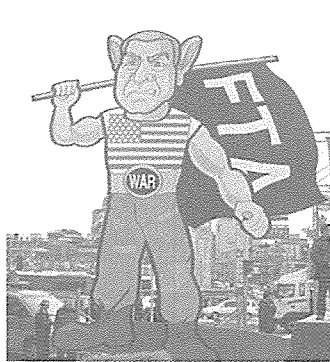
이날 참가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 반대, 스크린쿼터 복원,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와 함께 양돈협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각 도별로 농대위 결성에 참여, 총결기대회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미국의 압력이

노골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농민과 시민 등 집회 참가자들은 을지로 입구를 거쳐 종각로터리까지 1km 구간 거리행진을 벌인 뒤 청계광장으로 옮겨 촛불집회를 열었다. 또한 농대위는 1주일 뒤인 29일과 12월 6일 '한·미FTA저지 2, 3차 총결기'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 전국 13개 도시에서 총결기대회 동시 개최

한편 이날 집회에는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 전국 13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경남 창원에는 농민과 노동자 1만



- 한·미 FTA 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농대위)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월 22일 서울광장에서 '한·미 FTA 저지 1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갖고 정부에 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3000여명이 모여 '한미FTA 저지'를 목청껏 외쳤다. 이날 경남 대회에 참석한 강기갑 의원은 “농업은 우리의 어머니다”며 “노동자와 농민을 죽이는 한·미FTA를 막아내야 한다”며 전 국민이 FTA 반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 FTA 반대 100만 항쟁선포 기자회견도 열려

한편 최영열 양돈협회장을 비롯한 농대위 소속 단체장들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100만 항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400만 농축수산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농업 파탄협상, 농민말살협상, 경제예속협상인 한미 FTA 협상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굳센 의지로 도청으로 집결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한미FTA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고 경고했다.

### 미국인들도 FTA 반대시위에 동참

한편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미국인 FTA 반대도 함께 진행되어 주목을 끌었다. 미국인 반전운동가 신디 시헨은 반전운동가로 FTA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FTA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같기 때문”이라며 무대에 올라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가리키며 FTA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시헨은 “대규모 집회뿐만 아니라 지역 의회 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이슈를 알리고 시민사회 여러 조직들과 연대해서 활동하는 행동들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편지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돈**